

# 민주 전북 기초단체장 후보 합동연설 본격

### 오늘 군산을 시작으로 1~2차로 나눠 순차 진행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본격 시작한다.

전북도당 선거위는 24일 "25일부터 지역별 합동연설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설회는 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1·2차 심사 결과물

통과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1차 합동연설회는 총 9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일정은 △25일 군산(오후) △26일 부안(오전)·고창(오후) △27일 장수(오전)·순창(오후) △28일 익산(오전)·전주(오후) △29일 무주(오전)·진안(오후) 순으로 이어진다. 임실군과 2차 심사 대상 지역인 정

읍·남원·김제·완주 등은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번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 앞에서 직접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평가받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존 서류 및 면접 중심의 심사 방식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후보 간 경쟁력과 소통 능력을 공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현장 검증형'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북도당은 전국 시·도당 가운데 처음으로 '참여형 현장 연설회'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동일한 무

대에서 후보자들이 정책 역량과 대중 소통 능력을 동시에 검증받는 구조로 지역 정치의 새로운 혁신 모델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인다.

아울러 도당은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연설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합동연설회 관련 세부 사항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 '피지컬AI 수도' 전주

### 민주 이원택 의원, 미래산업 비전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전주를 대한민국의 '피지컬 AI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미래 산업 비전을 제시했다.

이원택 의원은 24일 연구개발과 산업 실증, 인재 양성을 연결하는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정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걸었다.

피지컬 AI는 로봇과 자동차, 기계, 건설기계 등 실제 기계를 제어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향후 산업 전반을 이룰 핵심 분야로 꼽힌다. 이 의원은 해당 산업 선점을 통해 전주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미래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의원은 우선 한국피지컬 AI 연구원 설립을 추진해 전주를 국가 차원의 AI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까지 약 1,500억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 연구와 산업현장 테스트베드 구축, 국가 피지컬 데이터뱅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문대학원 설립과 글로벌 공동연구,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창업과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아울러 1조원 규모 국가 피지컬 AI 사업과 연계한 실증단지 확대도 추진된다.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김제, 군산 등 산업 거점을 연결해 제조와 농업, 특장차 건설기계 분야 4대 실증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실증지구에서는 자율주행 농기계와 무인 화물트럭, 로봇 기반 공장 자동화, 무인 건설장비 등 다양한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시험하고 사업화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도 병행된다.

2026년부터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전북 AI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도내 14개 시군에 교육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중·고 대상 AI 및 로봇 교육 확대와 함께 마이스터고 전환 전문대학원 과정 운영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장인과 고령층을 위한 AI 교육도 병행해 전 세대가 참여하는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권희성기자

# "시민을 살기 좋게... 능력·정직·공감의 여성시장 시대"

###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선거에 도전한 국주영 예비후보가 "무능·거짓·불통의 정치를 끝내고 능력·정직·공감의 정치로 전환하겠다"며 여성시장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국 예비후보는 24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를 전주답게, 시민을 살기 좋게 만드는 첫 번째 여성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228명의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단 7명, 3.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북은 30년 지방자치 역사 동안 단 한 명의 여성 단체장도 배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국 예비후보는 자신의 정치 이력을 언급하며 "호남 최초 여성 광역의회 의장 전북 최초 도의회 의장을 지내며 유리천장을 싹터오 개웠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회 의장 선거 당시 여자가 의장을 한다"고 하는 노골적인 편견과 맞섰다"며 "성별이 아니라 시민의 아픔에 얼마나 진심으로 반응하는지가 정치의 본질임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전주는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전환점에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포부를 밝히고 있다.

서 있다"며 "여성 시장의 탄생 자체가 전주의 담대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 예비후보는 세 가지 핵심 가치로 △능력 △정직 △공감을 제시했다.

그는 "공당 평가에서 하위 20%라는 낙제점을 받은 무능한 리더에게 7,000억 원 규모의 빚 문제 해결을 맡길 수 없다"며 "살피는 마음으로 재정을 정상화하고 민생 예산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거짓과 변명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정직한 행정으로 전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주전 버드나무와 덕진공원 소나무, 완산철봉 삼나무 숲 훼손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시민의 추억과 감정을 존중하는 공감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국 예비후보는 "능력 있고, 정직하고, 공감하는 여성시장이 전주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여성시장 국주영이 곧 전주의 담대한 변화"라고 거듭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명분 없는 전쟁에 한국이 가담? 안될말"

### 백승재 도지사 출마예정자

전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백승재 후보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강하게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파병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 예정자는 24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전북도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하며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민국이 가담하는 것은 국익이 아닌 국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이런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선택적 침략전쟁"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고위 인사들조차 양심을 이유로 사임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 예정자는 "국내 여론 역시 파병에 부정적"이라며 "국민 55%, 호남권에서는 6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를 지향해 온 전북도민의 뜻을 받들어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예정자는 "전북 전역에서 도민들과 함께 평화의 스크럼을 형성해 전쟁과 파병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향후 지속적인 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만호기자

# "경선은 공정하게, 본선은 하나로... 원칙 바로세운다"

### 민중 정읍시장 예비후보 4인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인 인수용·이상길·김대중·최도식 예비후보가 2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경선과 본선 단결"을 골자로 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네 후보는 "원칙을 바로 세워 정읍을 새롭게 하겠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정읍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현재 정읍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속에 놓여 있다며 "지난 4년의 정체를 반복할 것인지 변화와 개혁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한 출마예정자가 공천심사 결과, 25%의 감산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이의 제기를 이어가며 당의 기준과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당의 기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김대중(사인 왼쪽부터)·이상길·인수용·최도식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2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경선과 본선 단결'을 골자로 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라며 "모든 후보는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정당당파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네 후보는 공동 선언을 통해 △공정한 경선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 △경선과 본선에서의 4인 단결에

오 형성을 약속했다.

4인 후보는 "정체된 정읍을 바꾸고 새로운 정읍시대를 열겠다"며 "그 길을 시민과 함께 가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 문승우 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실효성 확보 필요"

### 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3)이 24일 울산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에서 '주민 체감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실효성 확보 등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

으나 최근 지방의회 관련 특례가 포함된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상 통합시의회에 예산 독립, 예비금 편성, 의원 지급 비용 종류 및 기준, 행정사무 감사 방법 등에 관한 특례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에 이러한 권한이 담기지 않을 경우 타 지방의회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 2026년 정기대회의에서 문승우 의장이 '지방의회법(안)의 실효성 확보 등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54홀 규모 파크골프장 새로 조성"

###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생활공약 1호 발표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시민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시하며 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재선에 도전하는 우범기 예비후보는 24일 "전국 대회 유치가 가능한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새롭게 조성하겠다"며 생활공약 1호를 발표했다.

이는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여가·건강 증진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우 예비후보는 "최근 파크골프는 전국 동호인 수가 7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시설 부족으로 이용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 단위 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 대형 구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동안의 성과도 함께 언급했다. 마진교 파크골프장은 기존 9홀에서 18홀로 확대됐고, 온고을 파

크골프장은 36홀 규모로 조성되는 등 공급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우아·혁신·중인·은석 파크골프장(각 9홀)이 공사 중이며,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고산 지역에도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이와 이서 지역에도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어 향후 인프라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우 예비후보는 시설 확충과 더불어 이용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파크골프장 조성만큼 중요한 것이 이용자 편의"라며 "화장실, 쉼터, 주차장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순차적으로 완비해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파크골프를 전 세대로 확대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와 스포츠 관광 기반 마련까지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만호기자

# "로컬푸드 기반 전문 요리 교육기관 설립"

###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조국혁신당)가 지역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전문 요리 교육기관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미식 산업 중심 도시로의 전환 비전을 제시했다.

임 예비후보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익산 로컬푸드 요리학교(CII·Culinary Institute of Iksan)'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창업·관광이 결합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뉴욕 ICE와 일본 초지조리사 전문학교를 모델로 삼아 실습과 창업 중심의 1년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인턴십과 팝업 레스토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 과정에는 지역 식재료 활용, 메뉴 개발 원가 관리 및 브랜드 전략 등 외식 창업 전반이 포함된다. 이번 공약은 익산을 농업·가공 중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조국혁신당)가 지역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전문 요리 교육기관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미식 산업 중심 도시로의 전환 비전을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